





배운슬 초등학교 2학년

2025년 5월 31일 토요일 날씨해가 짙짙함

쓰레기 줍고 새활용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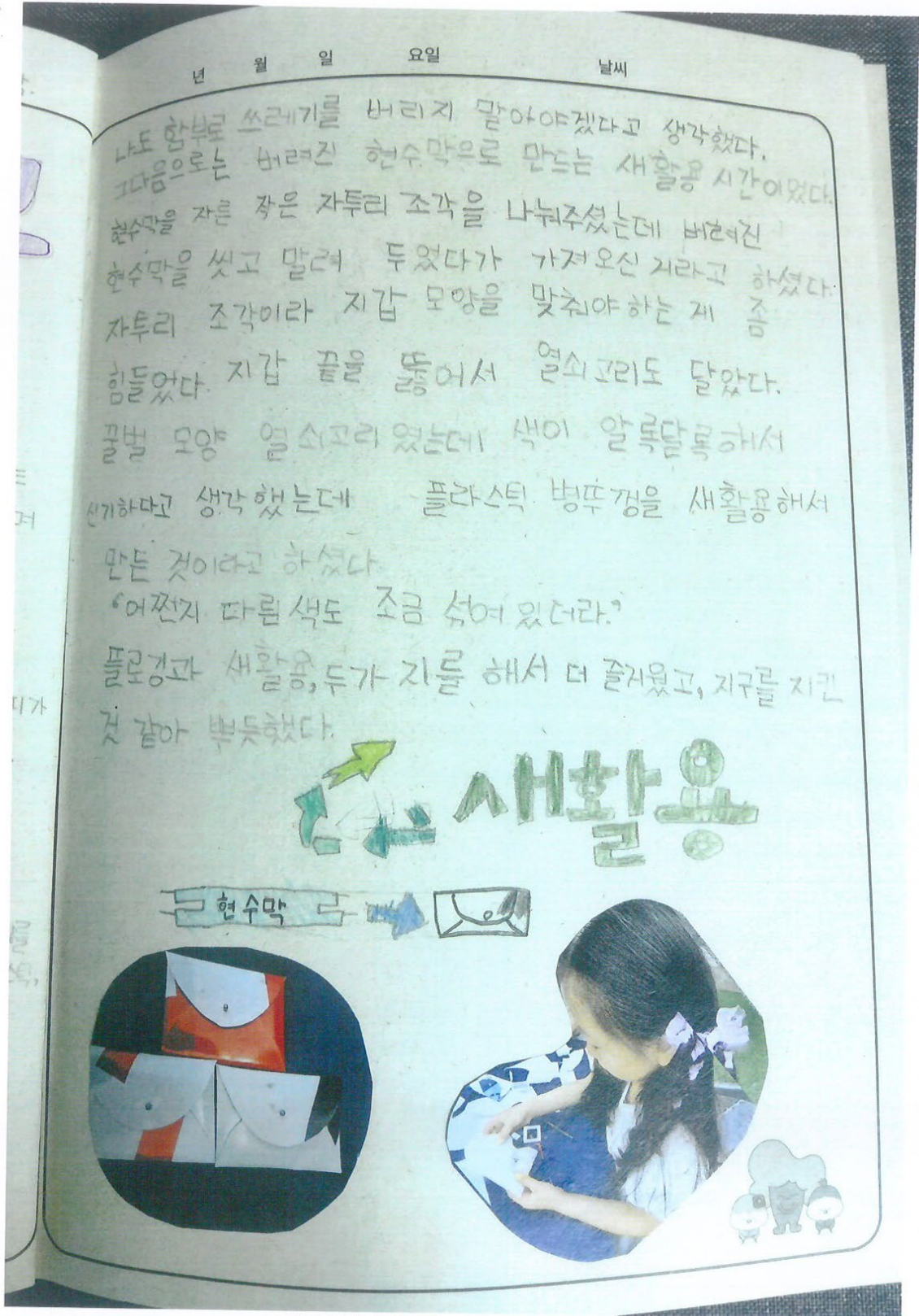
오늘은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 플로깅도 하고, 새활용도 하는 날이다. 먼저, 선생님이 주신 집게와 봉투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주웠다. 마치 어린이 쓰레기 탐험가가 된 것 같았다. 길거리에 담배꽂초들이 여기저기 많이 버려져 있었다. 심지어 몇 개는 조금전 버려졌는지 지독한 냄새를 풍기며 연기가 나는 것도 있었다. 그런데 문가 새는 것 같아서 봉지 안을 보니 커피사 줄줄 새고 있었다. 누군가 먹다 말고 그대로 버렸나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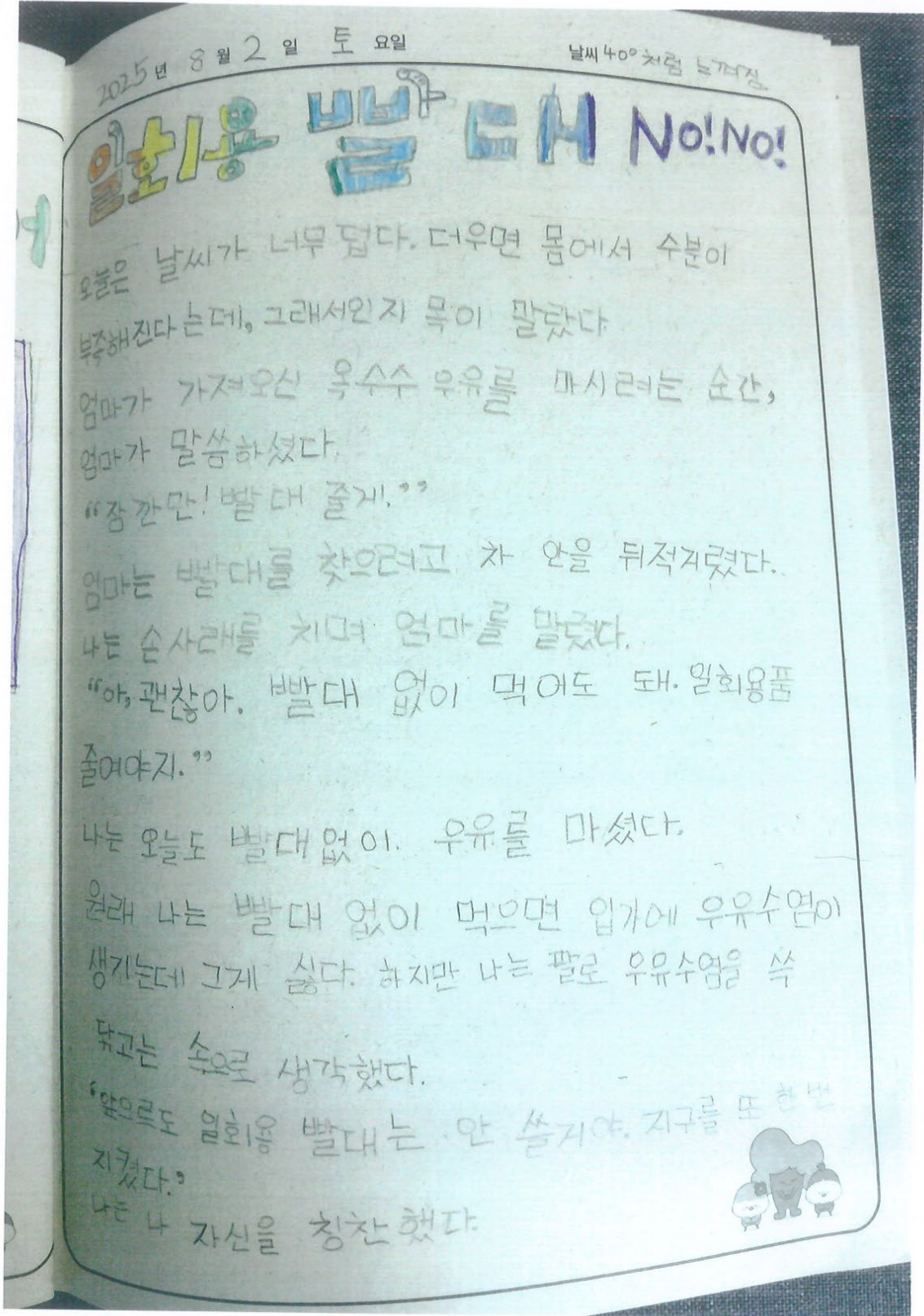
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다. 이번에는 일회용 도시락을 발견해서 주우려는데..... 우! 남은 음식에 개미가 바글바글했다. 마음은 줍고 싶었지만 너무 소름 끼쳐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피했다. 이제 다시 모여서 나누는 시간! 여러 가족들이 주워온 쓰레기를 바닥에 다 모아 보았다. 선생님은 장갑을 끼고 쓰레기들을 캔, 플라스틱, 담배 등 종류별로 분리하셨다. 플로깅을 잠깐만 했는데도 길거리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다니 사람들이 쓰레기를 잘 버려 주었으면 좋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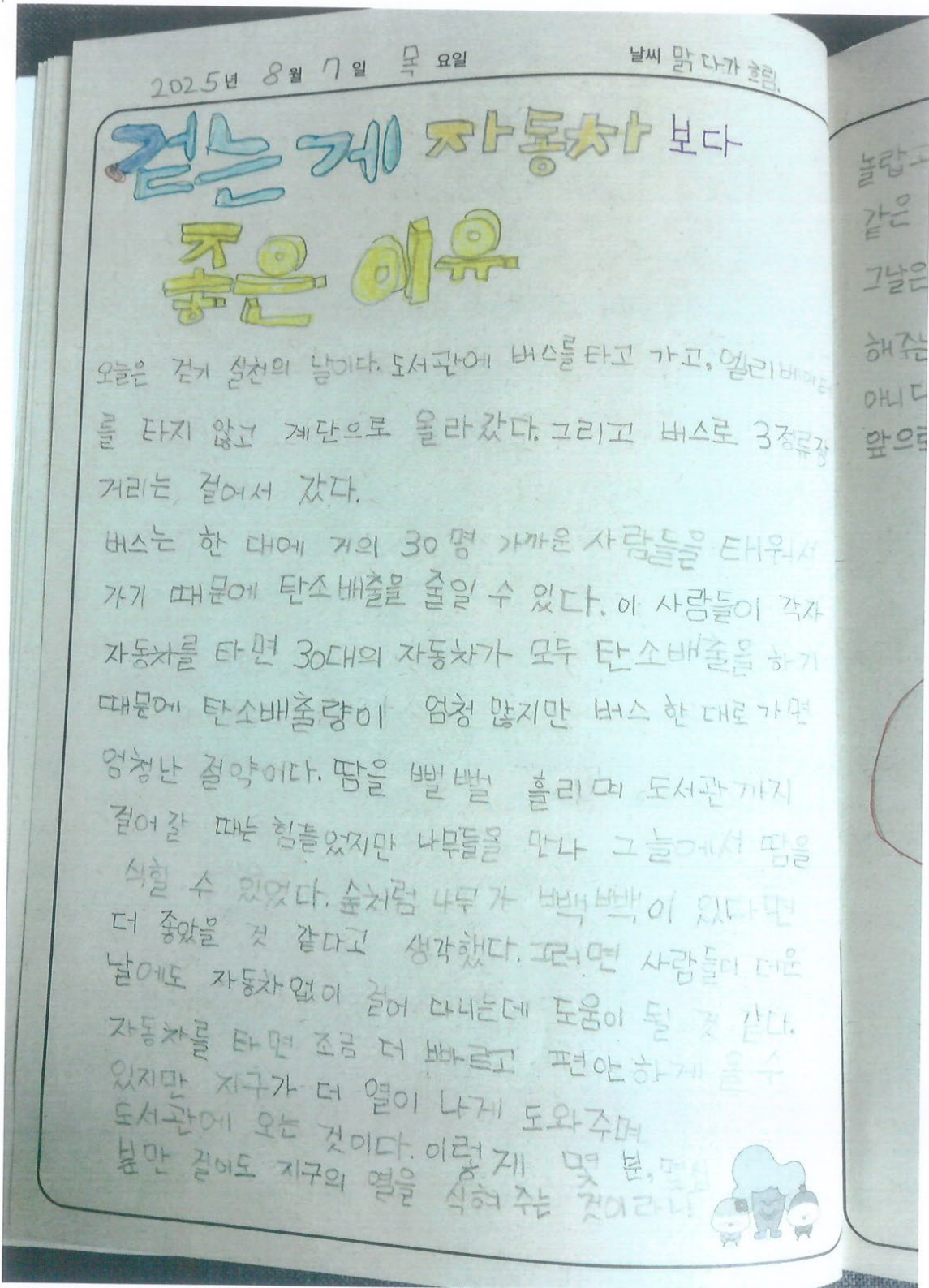





배운슬 초등학교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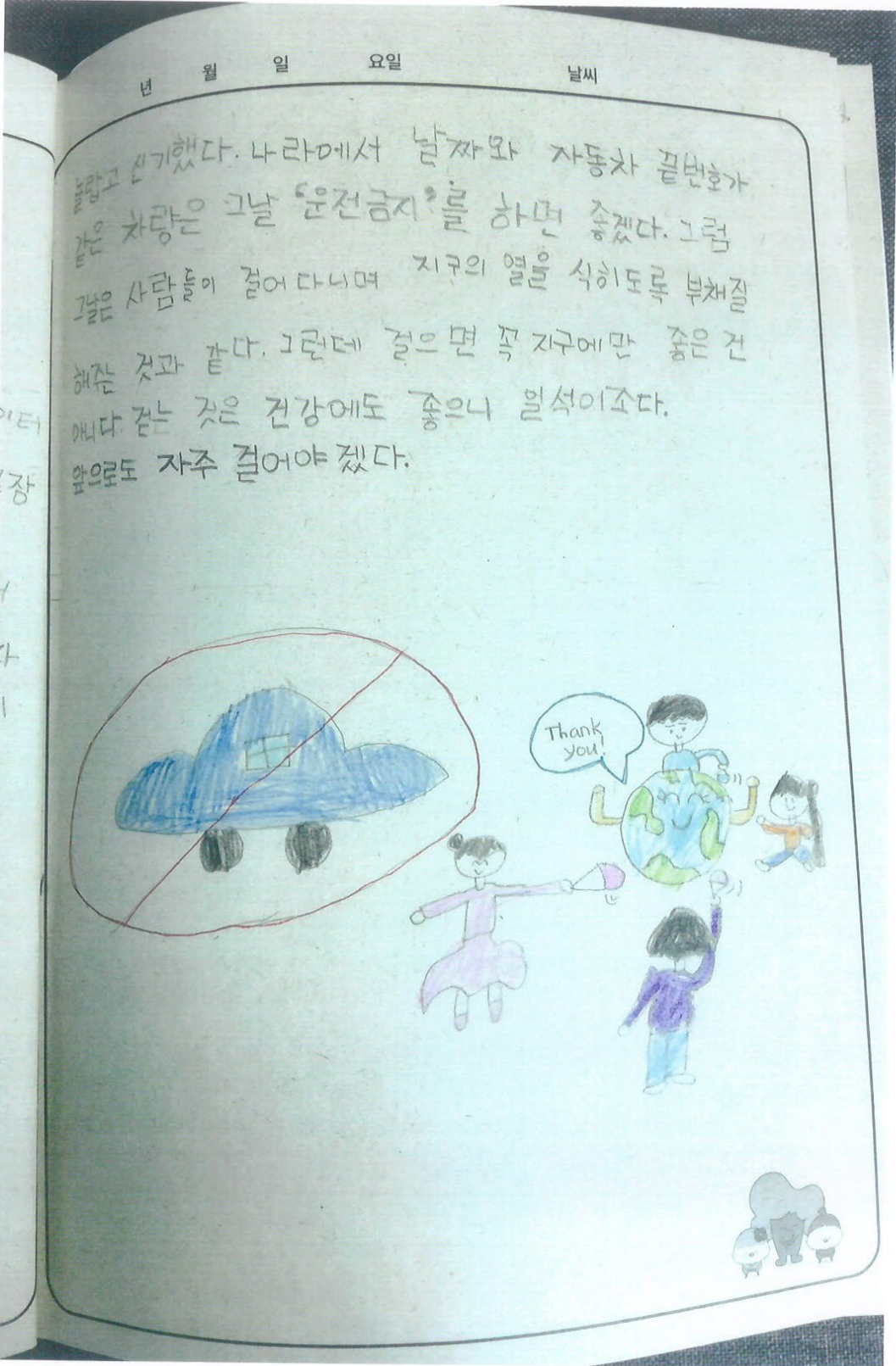






장려상

배운슬 초등학교 2학년





배운슬 초등학교 2학년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날씨 해가 뜨겁게 내리쬐다

채식 도전!

<점심시간에 지규를 구하는 법>을 읽고 일주일에 한번씩 채식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채식을 하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데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주일에 한끼씩 채식하면 소나무 15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다고 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는 이미 일주일에 한 번 해산물, 달걀, 유제품은 먹는 페스코 단계쯤은 하는 것 같다. 오늘도 나는 채식 완료다. 아침으로 감자 샌드위치도 먹고 점심으로 가지 볶음, 저녁에 단호박 전과 갈치도 먹었다. 모두 다 채식이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채식만 하면 몸에 힘이 없거나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 소와 양처럼 되새김질하는 동물의 트림, 방귀, 배설물에서는 메탄가스가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고기 대신 채식을 하면 메탄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채식이라고 하면 야채만 먹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알고보니 여러 단계 채식이 있어서 꼭 야채만 먹지 않아도 채식을 할 수 있더라.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 채식하는 날이 많아질 것 같다. 다음주에는 락토오보 단계를 도전해 보아야겠다. 생선물 안 먹는 건 좀 힘든가? 흐흐.

<출처> 점심시간에 지규를 구하는 법

☞ 채식의 종류를 다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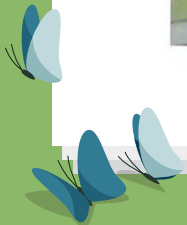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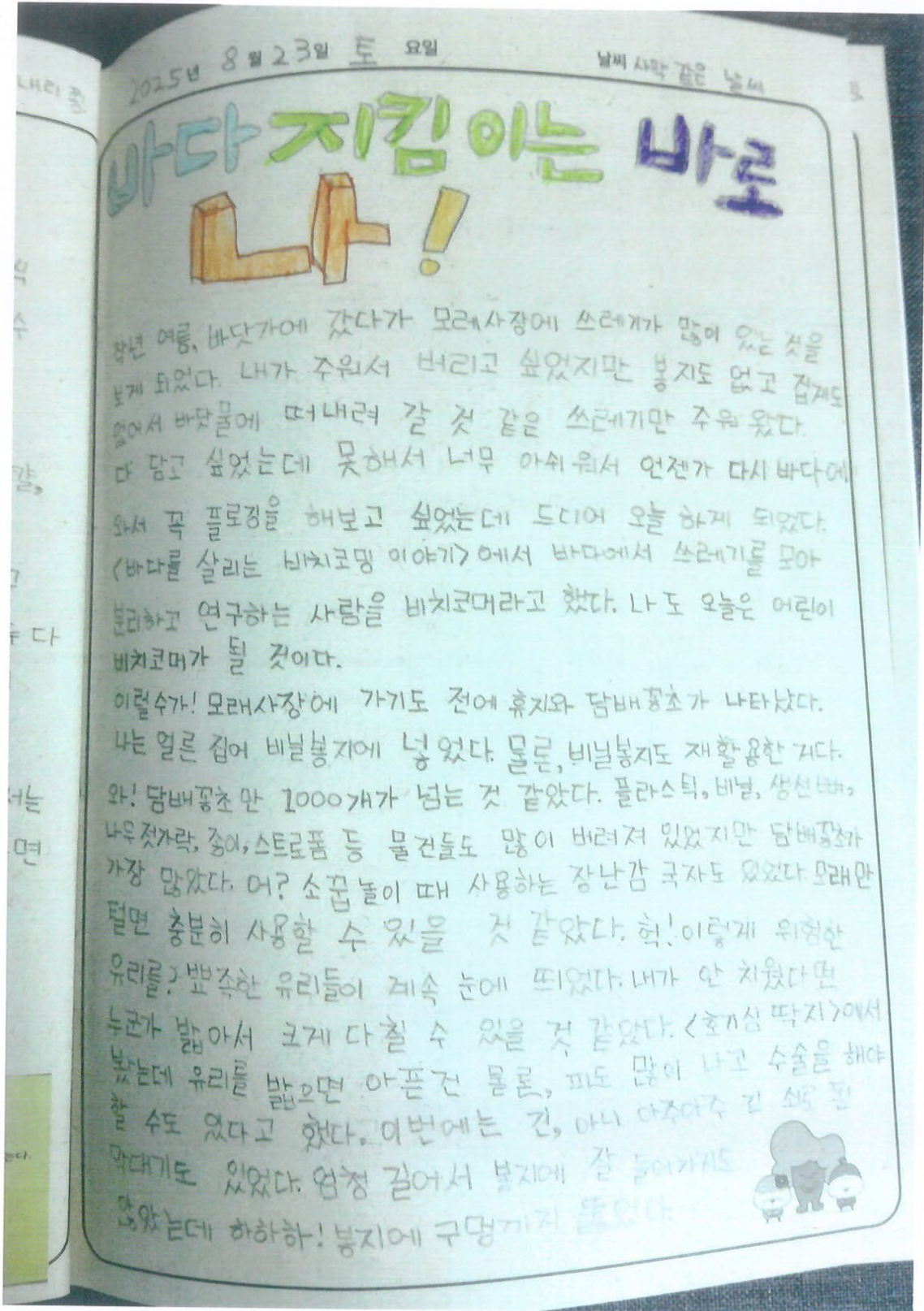
플렉시테리안: 주로 채식을 하나 때에 따라 육식을 한다.
 풀로: 붉은 살코기와 해산물을 먹지 않는다.
 페스코: 모든 동물을 먹지 않지만 해산물, 달걀, 유제품은 먹는다.
 락토 오보: 채식을 하나 달걀과 유제품은 먹는다.
 락토: 달걀도 먹지 않으나 유제품까지는 먹는다.
 오보: 유제품은 먹지 않으나 달걀은 먹는다.
 비건: 동물을 착취해서 얻은 식품을 먹지 않고, 가죽이나 털 같은 동물성 재료도 소비하지 않는다.
 포부테리안: 식품의 생존을 방해하지 않는 과일만 먹는다.

2025년

바다

작년 여름, 보게 되었어. 바닷물 다 담고 와서 꼭 <바다를 분리하고 비치코머 이럴수가 나는 얼른 와! 담배 나무젓가락 가장 많 털면 총 우리를? 누군가 봤는데 할 수도 막대기 앉았...







배운슬 초등학교 2학년

년 월 일 요일 날씨

아예 갑자기 허벅지가 너무 아파서 보니 아가 구멍으로 배배깡 고개를 내민 긴 쇠가 나를 꼭 찌른 것이다. 급해서 다홍색 자국이 난 걸 보니 수상했다. 돌아가려는데 바닷물과 가까운 곳에 페트병, 비닐봉지, 빨대, 스티로폼 등이 바람에 날려와 떨어져 있었다. 언젠가 책에서 이렇게 바다로 흘러간 쓰레기들이 쓰레기섬을 만들고, 바다생물들이 막이 인줄 알고 잘못 먹어서 죽거나 다친다고 했다. 처음에는 한 바퀴만 돌면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두 바퀴를 돌아도 다 치울 수 없어서 안타가웠다. 끝없이 쓰레기가 나와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2시간 노력한 만큼 바다가 더 깨끗해졌을 거라고 믿는다. 강아지와 산책 나온 아주머니들도 다음에는 우리도 쓰레기 봉투를 가져오라고 하셨다. 오늘 내가 치운 쓰레기로 바다생물 구하고 칭찬도 받으 진짜 바다 지킴이가 된 듯이 부듯했다.

2025
고
시장에 갔
주인 아주
먹어보니
내 포장
딱딱한
모르겠지
여건 신
씩는 과
이 부송아는
과일을 사
발생하거
크거나
작은 우
과일에도
기뻐다
오늘 하루
배운슬
초등학교
2학년
배운슬
2025. 10. 10
수요일
맑음
<출처>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날씨 화창한 날.

에어컨 사용 안내서

우리 집은 늘 에어컨 온도를 27도로 한다. 27도면 더울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불편하지 않고 시원하게 생활할 수 있다. 작년에는 에어컨을 안 틀때도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너무 더워서 1도 낮춰 26도로 틀기도 한다. 에어컨 적정온도는 26도~28도라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지만 나에게 걱정이 생겼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면 우리 가족이 에어컨 온도를 26도에서 25도, 24도로 계속 낮추거나 오랜 시간 틀게 될 텐데 그럼 적정 온도에서 벗어나 지구에게 더 해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아, 제발 지구온난화가 멈추면 좋겠다. 회사에서 늘 에어컨 온도를 너무 심하게 낮추는 아버지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 주시면 좋겠다.



<중요한 사항>
에어컨 적정 온도는 26°~28°입니다. 지구를 위해 적정온도로 사용하세요.

